

소셜 미디어의 소통 구조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

1. 소셜 미디어의 개념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블로그와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이벤트 네트워킹 사이트로 세분화되고 있다. 협업(collaboration) 기반 소셜 미디어는 참여자 간의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위키, 소셜 북마킹, 소셜 뉴스, 리뷰&오피니언 사이트, 커뮤니티 Q&A 사이트로 분류된다. 그리고 공유되는 콘텐츠 형태에 따른 콘텐츠 공유 모델, 게임과 연결된 엔터테인먼트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마이크로 블로그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환경 변화와 함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이다. 마이크로 블로그는 쉽고 가벼운 형태의 소통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 의견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상호작용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나아가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소통 방식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거나 새롭게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인맥 관리,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음악, UCC(User Created Contents),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개인을 둘러싼 인맥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맥들이 제공하는 정보,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2. 마이크로 블로그; 트위터의 소통 구조, 소통 목적 그리고 소통 방법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논평과 의견을 적고, 심도 있게 감정을 표현하고, 쓰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진전시키고, 커뮤니티를 형성/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Schiano, Nardi, Gumbrecht, & Swartz, 2004). 이러한 블로그 글쓰기의 동기는 이것의 축색판(縮刷版)인 마이크로 블로그에도 역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마이크로 블로그도 설명, 설득, 친교 목적의 소통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인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의 친교적인 성격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트위터의 시작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즉 ‘메신저’의 기능을 다른 형태로 시작한 것이기에 1차적으로 트위터의 목적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주를 차지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SNS와는 달리,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는 반드시 상호소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글이 짧고 간결해진만큼, 관계 역시 간결해지고 있는 것이다. 면대면 관계에서 ‘서로를 안다’ 내지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관계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은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목적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큰목적이 되고, 실제 그 목적만도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적인 양상을 띤다. 즉, 팔로잉 목록은 내가 ‘구독’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목록과 동일한 목록이다. 결국 마이크로 블로그의 소통은, 관계 증진과 함께 정보 수집의 목적을 강하게 띠게 된다.

트위터의 관계는 팔로워와 팔로잉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의 트윗(Tweet, 트위터에 올리는 단문을 뜻하는 말)을 읽고 싶을 때 그를 팔로잉을 하면, 그 사람의 글이 내 트위터 메인 화면에 뜨게 된다. 그 수가 많아지면 다양한 사람들의 트윗이 실시간으로 내 메인화면을 장식한다.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팔로잉하면, 나는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트위터 문화인 ‘맛팔’은, 예전에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던 친구 신청/친구승락에서 유래한 것이다. 누군가 나를 팔로잉하면, 그 ‘답례’로 내가 그 사람을 팔로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트위터에서 이러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팔로잉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팔(Unfollow)’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 한 요즘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당’ 만들기도 활발하다. 음식, 운동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취미활동에 관련한 당 문화 역시 한국 트위터의 색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단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은, 리트윗(Retweet)에서 온다. 인상 깊은 트윗에 리트윗을 하게 되면, 내 팔로워들에게 이 트윗이 보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하는 Quoted Retweet(RT)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트위터가 위력적인 이유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링크하여 트위터에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또는 사건에 대한 기사가 빠르게 순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 때문이다. 이것이 카메라 기능을 가진 모바일과 결합했을 때 그 위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텍스트 파일까지 다양한 ‘복합양식(multimodal)’의 언어(윤여탁 외, 2008: 25)가 트위터를 통해 링크된다.

3. 사회적 상호작용 매체의 국어교육적 의의

3.1. 사회적 상호작용 매체로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글쓰기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새로운 미디어는 단순히 도구의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글쓰기 도구의 어포던스(Affordance)는 예전의 ‘필기구’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Gibson(1977)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동물이 살아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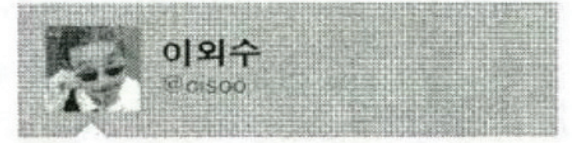
생존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즉 주변의 환경은 그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한 요건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동물은 그러한 주변 환경의 어포던스를 지각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삶의 지속적 영위가 가능해진다. (옥현진, 2010 재인용) 때문에 서로 다른 어포던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옥현진, 2010 : 222). 단순히 트위터의 사용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표현 양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신의 표현이 미칠 수 있는 범위와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변화한 사회 네트워크의 운용 원리를 알고, 이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 역시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참여자는 소셜 미디어 상의 소통에서 오프라인과는 다른 자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현된 자아가 어떠한 소통 방식으로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본래의 자아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에 대한 부분도 국어교육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3.2 정보 선택을 위한 비판적 사고

예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쌓은 필자가 공식적으로 다양한 검열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만 책을 ‘출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공간에서 더 쉽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글을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반드시 실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가진 정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또 다른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그 ‘정보’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2009년 미네르바 사건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정보가 많은 독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허위 사실에 현혹될 위기에 또 같이 놓이게 되었다. 단문을 대상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청자와 화자, 독자와 필자가 구분되었던 예전 의사소통의 상황과는 달리 모두가 ‘참여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소통의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예전보다 유명인과의 접촉도 잦아졌다. 특히, 마이크로 블로그 계정을 가진 유명인은 그만큼 더 많은 팔로잉을 거느리게 되었고, 그들의 말은 더 빨리 거품망 없이 노출된다. 이를 악용하여, 유명인을



요즘 트위터에서 이외수를 씹으면 자기가 주목받는 인격자가 될 거라고 착각, 초딩수준의 뇌용량으로 저급한 게시물들을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찌질이 악플러들에 불과한데 가증스럽게도 한결같이 애국자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피식

사칭하거나 직접적으로 악담이나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다수 생겨났다. 위의 그림은 활발한 트위터 참여자 중 한 사람인 이외수 씨가 자신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조의 트윗을 받고 나서 남긴 반응이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다양한 필자가 난립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은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에서는 자신의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선별적 읽기와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평적 읽기가 이해 교육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존재했던 성별, 나이, 직업 등의 수직적 관계는 부차적이 되고,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소셜 미디어의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충분한 상호작용, 정보의 부족 등의 부분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충족시키면서 자신을 좀 더 확장된 존재로 이끌어 나간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이러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참여자 상호간의 배려하는 글쓰기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참여자는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데, 이때의 자기 표현의 글쓰기 역시 다른 참여자를 고려한 관계 지향적 글쓰기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도 참여자는 자신이 구축한 사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독자 중심의 배려적 글쓰기는 관계 맺기의 전제가 되는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과 확장에 있어서도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2. 정보 공유를 위한 신뢰성 확보

소셜 미디어는 정보 공유처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전달, 설득의 목적을 지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성이다. 개방, 참여, 공유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인식과 글쓰기 태도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양한 정보의 생산 주체가 된 참여자는 정보 공유의 사적 공간이자 공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인지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참여자들은 상호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문자언어,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언어, 소리언어, 영상언어 등을 하나의 텍스트에 통합하는 복합양식의 언어를 사용한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표현 도구와 장치를 이용하여 의미를 생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언어적 실천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참여자는 하나의 주체로 구성되는데, 이때 소통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의 이러한 관습과 체제를 익히는 과정은 그러한 소통이 개인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하는 ‘문화·매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손예희·김지연, <소셜 미디어의 소통 구조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한국어교육학회지, 한국어교육학회, 2010, pp.207-231

유재욱 기자
ryou9305@khu.ac.kr